

이데일리

[e갤러리] 아이슬란드로는 부족하다...카트린 프리드릭스 '매직 인터스텔라 포스'

 본문듣기 · 설정

기사입력 2019.08.16. 오전 12:45

 1

 댓글

요약봇

가



2019년 작

강렬하고 폭발적인 원색의 색감으로
자연·우주적 기운 거침없이 표현해내
아크릴물감 엉켜낸 10cm 입체감 특징



카트린 프리드릭스 '매직 인터스텔라 포스'(사진=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)

[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] 아이슬란드 출신 작가 카트린 프리드리クス(45)의 관심은 인간세상과 자연세계 사이에 뻗쳐 일어나는 '힘'에 있다. 원색의 강렬하고 폭발적인 색감으로 중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하는 과학·물리적 요소를 거침없이 다루는 추상회화 작업을 한다.

그 공간이 어디든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, 고향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지닌 기운을 응축시킨 거란다.

이제 작가의 관심은 우주로까지 확장한 듯 보인다. '매직 인터스텔라 포스'(Magic Interstellar Forces·2019)가 그것이다. 번역하자면 '마법 같은 행성 간의 힘' 정도가 될 터.

작품의 특징은 두툼한 입체감이다. 아크릴물감을 늘리고 당기고 뿌리고 엉켜내 10cm 정도의 두께를 뿜아낸다. 한시도 여유를 주지 않는 긴장감. 결국 무모한 인간행태가 자칫 자연·우주섭리를 거스르는, 그 순간을 경고하려나 보다.

9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서 메드씨·지알원과 여는 3인전 '에너지'서 볼 수 있다. 캔버스에 아크릴, 100×100+10cm. 작가 소장.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제공.

오현주 (euanoh@edaily.co.kr)

네이버 홈에서 '이데일리' 뉴스 [구독하기▶]

꿀잼가득 [영상보기▶], 청춘뉘우스~ [스냅타임▶]

< ©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 >